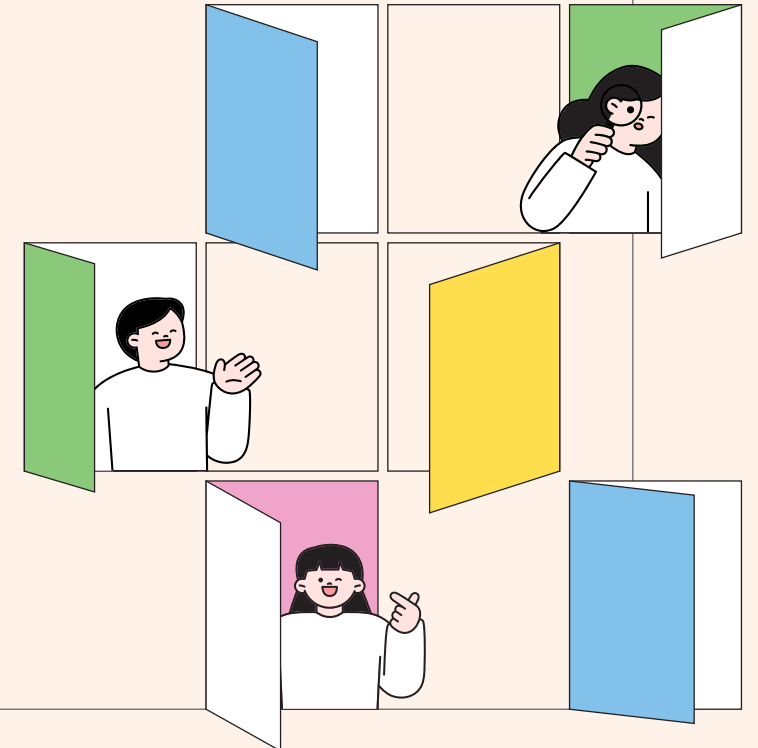


고립을 넘어 연결로,
삶의 변화를 만드는 연결의 궤적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고립을 넘어 연결로, 삶의 변화를 만드는 연결의 궤적



ycsupport.or.kr



“우리 집에 왜 왔니?”

낯선 이를 향한 경계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잘 압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머무는 시간이 쌓이면서
그런 경계가 고마움으로 서서히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그 ‘연결의 궤적’이 담겨 있습니다.

잘 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관심과 기다림이 만든 변화의 흔적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어떤 날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사람을 만나게 하고, 관계를 이어주었습니다.

복지관은 사람을 향한 관심이 관계로, 관계가 신뢰로

그리고 신뢰가 삶의 변화를 만들어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결국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그 곁을 지켜 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사람 곁에 머물며

마음과 관계로 이어지는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고립을 넘어 연결로, 관계의 힘으로 변화의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양천해누리복지관 관장

김 경 환 드림

우리의 에피소드

CHAPTER 01

연결의 시작 “우리집에 왜 왔니?”

그냥 만나러 갑니다.	05
커피 한잔 할까요?	07
누구나 연결을 원합니다.	09
핸드폰이 왜 필요해요?	11
같이하는 축구가 더 재밌어요.	13

CHAPTER 02

관계의 시작 “살피고 살리는 사람들”

사람을 살피는 마음 하나	15
단골 가게에서 이어진 마음	17
고립가구 발굴단 /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뚝뚝 뭉친 사람들	19
오고가게 이야기 / 이미 이어지고 있던 마음	22

CHAPTER 03

관계의 확장 “연결, 우리를 바꾼 관계”

함께 한다는 것	25
라이딩 대장으로	27
만남은 참 달다.	29
달라진 것? 말이 많아졌어요	31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33

연결의 시작 “우리 집에 왜 왔니?”

김정훈
(남, 56세)

사례
하나

그냥 만나러 갑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씻지 않은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한 적 없으니
집으로 찾아갑니다.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는 것이
송구스러워
좋아하는 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니
한참 고민 끝에 장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김정훈님과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냥 싫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계하지 않으면,
만남이 귀찮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모두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아주 천천히 만납니다.
못 하는 것, 안 되는 것 보다
**그래도 조금 잘하는 것,
해볼 만한 일을 생각하며 찾아갑니다.**

매번 잔소리하는 저도,
잔소리 듣는 사람도 하나도 즐겁지 않은
만남이었는데,
장기를 같이 두니 담당자의 발걸음도 가볍고,
장기 알려주는
어떤 이의 마음도 조금 편안합니다.

“냄새 많이 나죠?”
씻기를 싫어하던 정훈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담당자가 불편할까 염려합니다.

1년 가까이 꾸준히 이어진 만남,
만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김정훈님이
세수하고 면도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바꿨나봐요~
이거 끝나면 또 바로 갈 거잖아요”**

찾아오는 이가 불편해 방으로 숨던 어떤 이가
담당자를 기다리고, 떠날 때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 만에
그 집에 찾아가는 이웃이 생겼습니다.
2주에 한번 인근에 사는 목사님이
장기 두러 그 집을 찾아갑니다.

오지 말라고 한 적 없으니
그냥 찾아간 것이 전부입니다.

사례활동하지 않고,
정훈님이 염려되고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정훈님의 속도를 기다리며
어떤 이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결이 시작되고, 천천히 변화합니다.

커피 한잔할까요?

“오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은혜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만남

통장 일을 하고 있는 아랫집 이웃이
윗집에서 냄새가 너무 난다며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사례 관리가 진행 중인
가정이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은혜님을 복지관에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방문한 날, 열린 문틈 사이로 바닥에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본인도 민망했는지) 집에 들어가는 것은
한사코 거절하여서 밖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주 인상 깊었던
은혜님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은혜님은 언니와 단둘이 삽니다.
두 자매 모두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았고,
전에 비해 몸 움직임이 서서히 둔해지고 있습니다.
언니가 다니던 회사 일을 그만두면서
매일 혼자 하릴없이 집에만 있었던
은혜님에게 짝궁이 생겼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티비보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천천히 무너진 두 사람의 일상만큼
집안에 썩어 썩어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번번히 거절하기 바쁜 은혜님이었는데
아랫집에서 계속 불편을 호소하니
결국 청소를 허락합니다.
청소를 하고 나니 조금씩 마음의 틈이 열립니다.
박은혜님의 일상을 돕는
활동지원사도 연계하였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니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같이 해봐요~~~~

매일 혼자 집에 있는 박은혜님에게
외부활동하자 설득합니다.
움직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은혜님에게
복지관은 꽤 먼 거리입니다.
천천히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예쁜 카페에서 차 한 잔 하자고
겨우(?) 꼬셨습니다.
“네에” 예상치 못한 긍정에
만나는 날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만나기로 한 날,
“하고 싶은 맘이 사라졌어요”
갑작스러운 문자에 기대했던 만큼
서운하고 속상함이 밀려옵니다.
거절당할지도 모르지만 다시 또 설득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차 한 잔을 나누고, 이야기가 무르익습니다.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가 두려움을 이기게 했을까요?
산미 가득한 커피가 은혜님의 기분을 좋게 했을까요?
약간 상기되고,
설렘 가득한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매일 담당자가 하는 질문에
간단한 답만 하던 은혜님이었는데
오늘은 먼저 자기 얘기를 꺼내고
꽤 수다스럽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쓰고 시간을 보낸 만큼
마음이 열어지고, 마음을 얻으면 다음엔 뭐든
해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을 얻으려 갑니다.

누구나 연결을 원합니다

낯선 이를 경계합니다.

그래도 딱 한 사람,
사례관리하면서 만난 구청의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과
관계하니 다행입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생겼다는 건,
다음도 가능하다는 뜻이겠지요??



유일하게 유리님이 마음의 문을 연
구청의 통합사례관리사 덕분에 연결되었습니다.
유리님만이라도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마음이 저희와 닿아
아주 천천히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절’ : 연관 관계가 끊어지거나 흐름이 연속되지 않는 것

유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단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화장실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어머니.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을 억울하게 뺏겼다는
망상으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아버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정신과 입원을 반복한 이력이 있는 유리님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 돌봄이 필요한데
누구도 오는 것을 원치 않고 거부까지 심하니
그야말로 가족은 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유리님을 만나면서 가족을 전부 바꾸겠다는
무모한 생각이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어떤 부분이
유리님의 마음에 닿았을까를 살피고
저희도 그 마음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안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유리님을 인정하는 태도
진짜 걱정하고 염려하는 진심,
공감하는 마음까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유리님과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행사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시끌벅적 소란스러운 소리~
아직 준비가 필요한 유리님을
조금 더 배려하지 못한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선생님과 의논하여
유리님이 조금 더 준비가 될 때까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면서 연결의 끈을
천천히 확장해 가자 했습니다.

처음 모임에 오시는 날,
함께하시는 분들과 아주 기쁘게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유리님이 모임에 스며들도록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렸습니다.
속스러워하며 처음에는 함께 오는
통합사례관리사와만 대화 나누더니
어느 날 유리님이 먼저 “안녕하세요”하고
인사해 주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유리님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리님은 통합사례관리사 없이
혼자 모임에 참여합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유리님을 응원하며
관계를 살리려는 노력,
그것이 연결의 시작점입니다.

유리님에게 드디어 복지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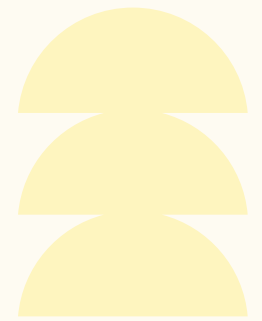
임규선
(남, 56세)

핸드폰이 왜 필요해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걱정하는데
정작 규선님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집안 가득 술병이며, 입지도 못할 옷가지들이 한 벽면 가득 쌓였습니다.
돈이 아깝다고 본인이 가스도 끊고 제대로 먹기는 하는지,
매일 씻기는 하는지~~ 말도 잘 듣지 못하고,
불편한 다리로 옥탑방에서 내려올 때마다 넘어질까 모두가 걱정입니다.

규선님의 집을 방문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계단도 가파르고, 난간도 없어서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뿔싸!!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본인도 옥탑방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했는지
이사는 가고 싶다 하여 그래도 나름 순조로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은 건 맞지만 7년을 넘게
살아온지라 딱히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뒤편 담배 사고 먹을 거 사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모아?”

이사를 위해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자 하면
역정을 냅니다.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4시 이전에는
잠을 깨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난 날은 컨디션이 떨어져
멍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아 대화를 하려면
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담배는 왜 그렇게 많이 태우는지
담배 냄새에 제가 찌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 이사 가기로 약속했으니
무작정 찾아갑니다.

허탕을 쳐도, 딱히 반겨주지 않아도
4시 이후 그냥 가서 인사하고 옵니다.
잘 듣지 못해서 어깨를 잡고 흔들어도
다행히 역정을 내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왜 또 왔어?”라고
웃어주기도 합니다.

규선님이 이사를 가게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규선님을 알게 되고
연결이 시작되면서 천천히 규선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규선님은 인근 시장에
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매주 월, 수, 금 시장 가게에서 대가 없이
재활용을 정리해 줍니다.

담당자랑 길을 갈 때도
깡통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발과 손 아귀 힘으로 납작하게 만들어
주머니에 챙겨옵니다.

규선님은 조지아 캔커피를 좋아합니다.
조금 친해지면서 가끔 슈퍼에서 제 커피도 사줍니다.

핸드폰은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어서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운다고 얼굴을 때려서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입이 너무 까다로우서
아무 식당에나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짠 음식은 너무 싫고,
카레나 짜장처럼 비벼먹는 음식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화곡동에서 오래 살았고
부천에 역곡도 잘 안다고 합니다.

집안에 쌓아놓은 병이랑 옷은
제 돈을 주고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병을 다 팔고 싶어도 동네 가게에서는
한 번에 받아주는 곳도 없고
손해를 보면서 팔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집을 알아보는 일이 더 구체화되서
연락할 일이 더 많아지면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조금씩 규선님을 알아갑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연결의 씨앗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씨앗이 열매 맺도록 잘 만나겠습니다.

같이 하는 축구가 더 재밌어요.

김시훈
(남, 27세)

밥도 잘 먹지 않고
핸드폰 축구 게임만 하니
걱정입니다.

어디라도 가면 좋겠는데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모두의 염려가 마음에 닿습니다.



처음 만난 날,
김시훈님은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서
까만 옷을 입고 핸드폰 축구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시훈님을 늘 걱정하셨습니다.

사실 시훈님은 혼자서 대중교통도
이용할 줄 알고, 장애가 있지만
학교 다닐 때는 본인보다 장애가 심한
친구들도 챙겨주고
선생님들에게 칭찬도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졸업 후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집 안에만 머물며 게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원하는 외출은
핸드폰 게임 속 재미있는
아이템들에게 밀렸습니다.

시훈님의 단절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무엇일까?
담당자는 시훈님이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시훈님. 지역에서 하는 요리 모임이 있는데,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볼래요?”
“네” 흔쾌히 대답은 했지만
막상 모임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담당자는 좌절 대신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건 좋아하는데 혹시 나오기가
힘든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시훈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모임이 있는 날,
시훈님을 직접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모임 후에는 대중교통을 같이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렇게 시훈님과 연결의 끈을
아주 천천히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시훈님이 드디어 혼자 모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훈님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핸드폰으로 즐기는 축구 게임은
여전히 재미있지만, 시훈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실제 축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맛있지만,
사람들과 마주 앉아 먹는
밥도 맛있다는 것을 압니다.

김시훈님은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낮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립이라는 벽에 갇혀 있었지만
갈 곳이 있고, 관심을 주는 이가 있어
복지관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복지관은 역지로 변화를 강요하는 대신,
시훈님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천천히 연결을 위한 다리를 놓고자 했습니다.

이제 시훈님은 게임 화면 속 세상을 넘어
현실 속 사람들의 따뜻한 세상에
함께 있습니다.
시훈님의 얼굴에 얇은 미소처럼,
시훈님이 더 많이 경험하고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관계의 시작 살피고, 살리는 사람들

마음 하나

사람을 살피는 마음 하나



여전히 싫다고만 하며 밀어내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꽤 좋아하기도 합니다.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 했거나
어려운 형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
참고 지내던 분들도 있습니다.
복지관과 주민이 함께 도우면서,
동네에 어려운 이웃이 발견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통장님은 좀 더 마음 편히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십니다.
복지관은 정기적으로 찾아가 안부를 묻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합니다.

이웃을 살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연결의 시작입니다.
누구든 '돕고 싶은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은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민 만나기를 통해 인연이 된
통장님이 고민을 꺼냅니다.

“우리 통에 다리를 잘 못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괜히 물어보면 실례가 될까 봐,
자세히 물어보기도 그렇고,
막상 들어도 도울 수 없는 일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망설여지더라고요.”

통장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동네 사람들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만난 통장님도 그랬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혹시 불편해할까? 조심스러워
한참을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여부, 경제적 여건 상관없이
그 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천천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마음

단골 가게에서 이어진 마음



상준님이 살고 있는 집은 혼자서
밥을 해 먹기 어렵습니다.
식재료는 둘째치고 마땅한 주방 도구도 없고,
가스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늘 괜찮다고 하시지만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영양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상준님께 솔직히 제 걱정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뭘 걱정해요? 괜찮아요”라고
대답하시던 상준님도 제 걱정
마음이 달라졌는지 의견을 전합니다.

“내가 가는 반찬가게가 있긴 있어요.
시장에 있는 반찬가게인데...
거기가 제일 내 입맛에 맞아요.”

좋아하는 반찬가게가 있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만든 반찬을 만들어
전해드리기보다는, 평소 이용하시던 가게를
조금 더 자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복지관은 후결제를 해야 해서..
사장님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 상준이요? 잘 알죠. 당연히 괜찮아요.
한 10년 전부터 이용했어요.
여기 단골이에요.”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줄만 알았는데
시장 반찬가게 사장님은 상준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상준이는 워낙 오래전부터 잘 알던 애예요.
시장에 자주 오고...
요즘은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장조림 같은 걸 좋아하고요.
근데 주로 밤에 다니니까 문 닫을 시간쯤 와요.”

이야기를 듣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복지관만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살피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도, 가게에서도,
조용히 살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더 자연스럽고, 더 따뜻합니다.
오래 이어질 수 있는, 일상 속 사람 관계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은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그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사람을 살피고,
관계를 살립니다.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뚝뚝 뚫린 사람들

지역에 있는 고립 가구를 찾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정동, 목동, 신월동 할 것 없이 양천구 전반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각 동에서 7명의 주민이 모였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말하며 복지관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 함께 배우는 시간
처음 만나 함께 교육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연고 사망 건수도 높고…
관계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인간관계가 참 어렵지만,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우리가 중간에서 연결자의 역할을 잘 해봐야겠어요.”

교육을 통해 활동의 필요성과 책임감을 느낀
주민들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을 논의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약국, 미용실처럼
단골손님이 많은 가게를 중심으로 홍보해 봐야겠어요.”
“우리 이야기를 잘 전하려면 식당은
바쁜 시간대를 피해서 오후에 가야겠어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월 2회 정도 함께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을 누비며, 마음을 전하기

고립가구를 찾는다는 홍보 포스터를 들고
지역으로 나갑니다.
발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각 가게마다 포스터를 비치해달라고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해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상가도 있었고,
반응이 싸늘한 곳도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곳에서는 더 열심히 이야기하게 되고,
들어주는 태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관심이 없는 상가도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바쁘는데
어려운 이웃을 살피기란 쉽지 않으니깐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 이야기를 나누면,
앞으로 어려워 보이는 이웃이 눈에
한 번 더 밝히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런데도 발굴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왜 실제로 발굴이 안 되죠…?”
“진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맨땅에 금 캐는 것보다 더 힘드네요.”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아직 홍보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죠.
지역에서 고립 가구를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한 통의 전화, 이어진 마음

9월 어느 날, 우편함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 치약이랑 포스터 준 곳 맞죠? 고마워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런 선물도 주시고...”
처음엔 단순한 감사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있었습니다.
“집에 아픈 아들이 있어요.
아픈 뒤로 잘 못 나가요.
병원도 안 가고,
가족들과도 대화를 잘 안 해요.
한 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고립된 당사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연락이었습니다.

발굴 홍보를 통해 연락을 받은 건
처음이라 얼떨떨했습니다.
급히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이었습니다.
제도권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기에,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가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함께하는 주민분들께 전했습니다.
직접 활동을 통해 얻은 첫 성과,
무려 5개월 만의 결과였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꼭 지원받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홍보가 이렇게 이어지네요.
앞으로도 우편함 홍보를 더 해봐야겠어요.”
고립된 분과 가족을 연결해 낸
주민분들은 활동에 더욱 큰 의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뿌듯하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립가구를 찾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먼저 연락을 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분들의 꾸준한 마음과
가족의 용기가 만나
하나의 연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시작’,
그리고 연결의 의미 아닐까요?

마음
넋

오고가게 이야기 이미 이어지고 있던 마음

복지관에서는 **“오고가게”**를 운영합니다.
주변 가게를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게,
이용하실 수 있는 쿠폰을 드리는 활동입니다.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자주 이용하고 싶은 가게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돕습니다.

그리고 가게 사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님이 방문하시면 다른 손님처럼
편안하게 응대해주시면 됩니다.”
“집 밖에 나가기를 어려워하지만,
이 가게만큼은 스스로 이용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인사만 친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저 기본적인 인사만 부탁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가게 사장님들을 만나,
연결된 분이 가게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말씀씨가 아주 유창하진 않지만,
반갑게 잘 맞이해드렸습니다.”
“전에 오셨던 분이라
얼굴이 익숙하더라고요.
혼자 오시진 않고 도와주시는 분이
같이 오셨어요.”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이제 얼굴을 알아서 지나가다 보면
'아, 그분이구나' 싶어요.”
그렇게 얼굴을 익히고,
조금 더 살피게 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가게에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수 계산이 어려운 분이라
금액을 맞춰 사용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계산하기 어려우면
제가 다 체크해줄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참 든든했습니다.
가게의 작은 배려가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님과 슈퍼에 가서
오고가게 이용법을 안내해드리는데,
○○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쿠폰은 여기다 두고, 올 때마다 쓸게요.”
미리 협의되지 않은 말이어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는 찰나,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마음이
더 열려 있는 모습에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외에도 가게를 돌다 보면,
이미 이웃을 살피고 있는
사장님들이 참 많습니다.
“식사 안 하셔도 자주 와요.
갈 데가 딱히 없으니까
와서 손님분들이랑 수다 떨고 그러죠.”
“이분 말고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가게 앞 계단에 자주
앉아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사정이 딱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보다 지역 안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일상을 나누며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오고 가게는 단순히
'쿠폰을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미 이어지고 있던
관계들이 있고, 서로의 안부를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복지관은 그 따뜻한 연결의 과정에
조심스레 발을 맞출 뿐입니다.

오며 가며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지길 바라는 오고가게 이름처럼
오고 가며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확장 연결, 우리를 바꾼 관계

관계
하나

오 태 수
[남, 67세]

함께 한다는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태수씨는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셨습니다.
같이 하면 좋을 복지관 프로그램을 여러 번 제안했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괜히 피해만 주는 건 아닐까요...”
늘 망설이며 참여를 주저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만남이 높은 벽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담당자와의 만남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태수님을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담당자가 동네에서 하는 소규모 공동체 모임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태수님이 고심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겠지요?”
어떤 마음으로 용기를 내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태수님이 누군가와 조금씩 연결되기를 바랐던
담당자의 진심이 전달되었을까요?

“괜찮아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같이 해 보면 돼요.”
함께하는 주민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구석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에 “곧 그만둘 수 있겠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기분 좋게 빗나갔습니다.
태수님은 누구보다 일찍 모임 장소에 나오고,
사람들이 이야기 하면 짧지만
조금씩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는 어느 날 감동적인 한 마디로 이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같이 활동하던 분이 아프다고 하자,
태수님이 걱정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힘들었던 태수님이
먼저 누군가를 걱정하는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수님이 옆 사람의 반찬을 챙기며
“이건 빼먹지 말고 가져가요.
여기에 넣어서 가져가요”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 같이 활동에
참여하는 분을 집으로 초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같이 병원을
가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제 태수님의 일상에는
‘혼자’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함께’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활동이 없는 날에도 이웃과 연락하며
“밥은 먹었어요?”, “이번 주엔 수영장 같이 가요.”
라는 대화를 나눕니다.

태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선생님들 덕분에 달라졌잖아요.
제가 할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죠”

태수님의 변화가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수님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함께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관계가
태수님의 삶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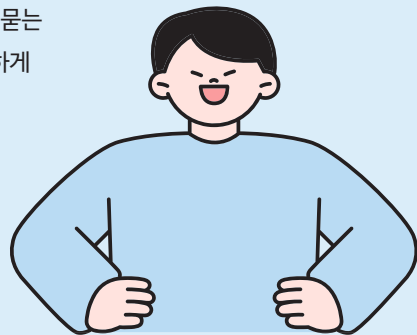
라이딩 대장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라면
언제든 콜이죠!!



“병원 다니고 주로 집에서 지냈어요.”
오랜만에 만난 서만길님의 짧은 대답에는
질은 외로움이 묻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웃들과 소소하게
이야기 만나는 모임에
서만길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말도 없이 조용히
계시더니 사람들과 낯이 익으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사세요?”, “점심은 먹고 왔어요?”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의 안부를 묻는
서만길님의 모습이 아주 미세하게
떨림을 느낍니다.



어느 날, 담당자가 서만길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서만길님~ 집 가까이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민규님이 있는데 혹시 잠깐 들려서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혼자가 된 민규님을 챙기는 것이
복지관 담당자의 몫일 수도 있지만
담당자는 혼자 사는 서만길님이
이웃의 안부를 살피면서
서로 연결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서만길님은 민규님이 몸이 안 좋아지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기까지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이웃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더운 날에는 일부러 시원한 음료를 사 들고
찾아가고, 무료한 오후에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분은 자연스럽게
서로 의지하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민규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조금 쓸쓸해하는
서만길님에게 담당자가 새로운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서만길님. 자전거 좋아하시잖아요.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라이딩하면 어떨까요?”
“오~~ 그거 좋네요. 혼자 타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타면 더 재미있죠.”

그렇게 서만길님의 이웃 관계는
자전거 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서만길님은 모임의 회장이 되어
팀원들을 열정적으로 챙깁니다.
“이번 주엔 어디로 달릴까요?”,
“시간 나면 우리 집에 놀러와요.”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하고
다음 만남을 계획하는 서만길님에게
활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날에 음악이 빠지면 섭섭하죠!!”
말수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지신 서만길님,
서만길님의 삶이 조금 더 즐거워졌습니다.

외로움은 서만길님이 사는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은 그 외로움을 기꺼이
견딜만한 에너지로 바꾸어 줍니다.
서만길님의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 자전거 바퀴처럼,
사람들과 즐거운 연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남은 참 달다

혼자 외로웠는데,
사람들과 만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할머니를 돌봐야 해요.”
평소 무얼 하나는 질문에
양관식님이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간병 외에는
특별한 외부 활동이 없었던 양관식님.
담당자의 권유에 “네, 한번 가볼게요”라며
조심스럽게 지역에서 하는
요리 모임에 걸음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요리’라는 구실은
양관식님을 꾸준히 모임으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해서 말도 잘 못 하더니,
“이렇게, 여길 잡고~, 그렇죠!
몇 번 알려주니 잘하네~”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칭찬 덕분인지
늘어나는 요리 솜씨만큼
함께하는 사람들과 익숙해져 갑니다.

“아휴, 우리 양관식님 너무 잘하네~
아주 든든해~.” 오늘도 지역 주민의
엄지척을 받는 기분 좋은 하루,
양관식님 얼굴에 웃음꽃이 필니다.

어느 날, 양관식님에게
뜻밖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집에서 키링을 두 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담당자에게 이 고민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고립되었던 양관식님이 누군가와
먼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양관식님은 ‘시민옹호’ 자원봉사자,
복지관 선생님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하며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돌봄으로 세상과 단절된 듯 지냈던
양관식님. 모임을 통해 관식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관계 속에서 받은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양관식님의 활짝 핀 웃음처럼 관식님의
삶의 레시피에 이웃과 나눔이라는
재료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달리진 것? 말이 많아졌어요.

같이 해야 하는 거면
언제든지 불러줘요!

같이 할게.

명선님은 한쪽 편마비로
집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한 손에 의지해 걸어야 하고,
높은 계단은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우자분이 있었지만
경제활동도 병행해야 했기에
늘 곁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벽차지고,
생활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세요.
사람도 연결해 주고, 이사 갈 때도 도와주시고...
제가 성격이 급해서 혼자 하는 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고...”
그 말은 명선님과 가족이 복지관에
처음 건넨 도움의 신호였습니다.

그 손길을 잡으며, 우리는 함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도움을 줄 사람들을 연결했습니다.
명선님은 언제나 “알겠어요.
이거 이거 준비하면 되는 거죠?”라며
흔쾌히, 그리고 꼼꼼하게 따라주셨습니다.
성격은 급하셨지만, 순서를 차근차근 안내 드리면
누구보다 성실히 해내셨습니다.

조금씩 관계가 익숙해질 무렵,
복지관에서 열리는 마을잔치 기획단
참여를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하셨지만 흔쾌히
함께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회의에 여러 번 참석하시며
모두가 함께 친해지니 말을 한마디 더해줍니다.
“좋아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행사 날에는 “테이블 이쪽으로 옮기면 돼요?
같이 해요!”라며 활발하게 참여하셨습니다.

기획단으로 함께한 명선님과 가족은
‘참여자’에서 ‘주인’으로 변해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말하고,
준비를 함께하며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행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절편 떡도 두 번이나 직접 해오셨습니다.
먹거리로 나누는 인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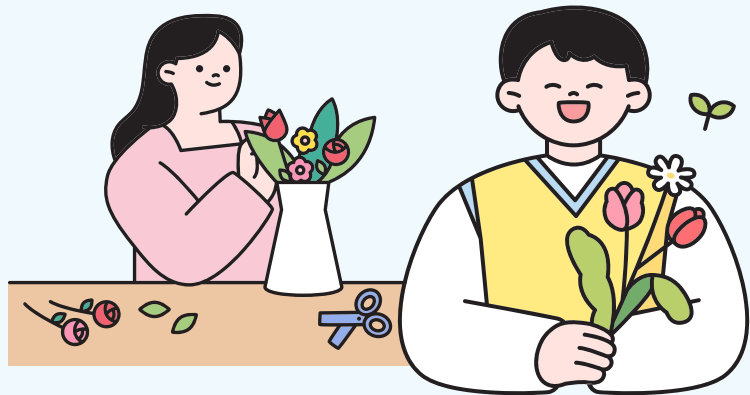
그 후에도 담당자를 만나면 물어봅니다.
“그때 그 통장님들.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지내요?”
항상 모이는 장소를 알려드리자,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인연은 계속됩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명선님께 여쭙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어떤 게 달라지신 것 같아요?”
명선님은 고민하시다 힘 있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많아졌어요!”

그 말은 단순히 수다스러워졌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고립 속에서 머물던 명선님과 가족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시간이 있고,
마음을 나눌 관계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오랜 바람이었던 아파트로
이사도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 편해졌습니다.
명선님의 웃음이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웃음처럼 복이 옵니다.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저도 꽃 만드는 거
신청할래요.
나들이도 또 신청했어요.



지적장애인 민석님은 청각장애가 있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외부에는 잘 나오지 않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외부 활동을 권유했지만,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이 무서운지 그때마다 부부는 망설이고 거절했습니다.

복지관은 조금해하지 않고 꾸준히 부부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석님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롯데월드 나들이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처음은 어려웠지만 한번 문을 열고 나오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석님은 복지관에서 하는 활동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참여 신청을 합니다.

외부활동을 망설이던 이전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프로 참여러'가 되었습니다.

민석님의 밝아진 얼굴은 보는 사람까지 기쁘게 합니다.

변화는 민석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도 모르고 청각장애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어렵지만 민석님을 따라 모임에 나오는 배우자는 몰랐던 재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으로 따라 합니다. 섬세하게, 예쁘게 완성된 작품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납니다.

“와...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보내주는 엄지척, 박수는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가정에 머물며 제대로 뽐내보지 못한 지난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쉬웠을까요?

두 분의 변화가 너무나도 반갑고 소중합니다. 고립되었던 부부가 세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알고, 자신들의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귀합니다.

민석님의 프로그램 신청이 반갑습니다.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신납니다. 앞으로도 두 분이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많은 즐거움과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길 응원합니다!

양천해누리복지관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만남과 연결이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지향합니다.

혼자가 아닌 지역사회와 이어지는 '연결' 속에서 스스로 삶을 이끌어 갈 힘이 생기고,

이 관계가 지속될 때 모두가 행복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립을 넘어 연결로, 복지관은 관계의 힘을 믿으며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따뜻한 연결을 위해 늘 곁에서 함께 걸겠습니다.

